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김 옥 수* · 김 계 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여성의 음주와 흡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20-59세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음주율은 1989년 79.8%에서 1999년 72.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23.2%에서 32.7%로 증가하였으며, 흡연 역시 남성의 경우 1989년 70.5%에서 1999년 67.6%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4.2%에서 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이러한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며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의 체액 구성과 에스트로겐 수준의 효과 등으로 인해 음주로 인한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되며(Bradley, Badrianth, Bush, Boyd-Wickizer, & Anawalt, 1998), 흡연 또한 임신 중의 여성에서 태아의 저체중과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Pollack, Lantz, & Frohna, 2000). 여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은 대상자 자신 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간접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국민 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개방화되고 자유화되면서 여성들

의 음주와 흡연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흡연이 마치 여성해방 의식의 표현이거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여 흡연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음주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절주와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습관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미 시작한 대상자들은 음주와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사회심리적인 변수 중에서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가 음주 및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Elder 등, 2000; Schraedley, Gotlib, & Hayward, 1999).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으로써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자기 파괴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고(Berkman & Syme, 1979; Lee, 1995; Denton & Walters, 1999), 우울한 대상자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달래는 하나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성있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나 청소년에 비해 여성들의 음주와 흡연, 특히 젊은 여성들의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의 음주, 흡연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파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 경원전문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음주와 흡연행위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신체질환의 발생률도 감소하게 되어 건강증진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감소하게 되리라고 본다. 더군다나 비슷한 발달 단계에 있는 여성일지라도 여대생과 직장여성은 학교와 직장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형성하는 문화나 역할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위나 태도 등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을 비교한 건강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학교와 직장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의 음주, 흡연행위와 그 관련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각 집단간의 특징에 맞는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와 우울, 음주 및 흡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정도를 파악한다.
- 2)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정도에 따른 음주유무와 흡연유무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용어의 정의

- 1) 사회적지지 :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개인의 만족으로(Sarason & Sarason, 1985), 본 연구에서는 Hong(1996)이 Sarason, Sarason, Shearin, & Pierce(1987)의 SSQ 6(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를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값을 의미한다.
- 2)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할 값을 의미한다.

- 3) 음주 : 음주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1주 동안 마신 술의 평균 단위(drinks)를 의미하는데 1단위(drink)는 맥주 1병, 포도주 1잔, 소주나 양주 1잔(소주잔)에 해당한다.
- 4) 흡연 : 흡연은 지난 1달 동안 피운 담배의 하루 평균 개피수를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사회적지지와 음주, 흡연

사회적지지란 개인이 필요시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며(Sarason & Sarason, 1985),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의 수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지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Roth, 1989).

사회적지지는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심리적인 개념으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련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건강관련 연구 분야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녕,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주, 흡연과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20세 이상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Denton과 Walters(1999)는 사회적지지가 음주와 흡연, 운동 및 영양과 같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라고 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강한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Elder 등(2000)도 사회적지지의 만족도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취약성의 중요한 예측 인자라고 하였다. Leonard, Kearns 및 Mudar(200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중 과도한 여성 음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음주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Hefferman(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행연구들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흡연과 관련한 외국 선행연구들을 보면, Eriksen, Sandvik, 및 Bruusgaard(1997)는 노르웨이에서 유아원 아동들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흡연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매일매일의 증가하는 흡연

빈도는 사회적지지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Milligan 등(1997)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여성대상자들은 금연을 시도하는데 있어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여 금연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음주, 흡연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우울과 음주, 흡연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우울은 슬픈 느낌의 감정으로써 정상인들이 스트레스사건에 나타내는 가벼운 우울반응에서부터 특수한 의학적 장애로 인한 우울, 정신병적 우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Schraedley 등, 1999). 우울성향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1996)은 우울증의 상대적인 위험도에서 여성이 1.58배 더 위험하다고 보고하였고 김병석, 김희수, 및 김자영(1998)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lbright, 1999; Son, Markovitz, Winders, & Smith, 1997).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대상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향이 있다. Lee(1995)는 음주가 우울, 가족과의 불화, 실업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에 대처하기 위해 알코올과 담배와 같은 부적절한 대처기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lbright, 1999).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chraedley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aham과 Schmidt(1999)도 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가 음주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rady와 Randoll(1999)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scobedo, Kirch, 및 Anda(1996)는 라틴계 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이 심하면 흡연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3-3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Son 등(1997)도 니코틴 의존이 있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우울과 흡연과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선행연구로는 유형심(1993)이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음주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으며, 정태흠 등(1998)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성향이 있는 대상자들이 흡연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와 음주, 흡연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169명과 서울에 있는 5개 직장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여성 133명 등 총 302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목적과 연구동의서가 포함된 질문지를 배부한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질문지 회수율은 82.9%였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지지 : Sarason 등(1987)에 의해 개발된 6개 문항의 SSQ 6(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를 Hong(1996)이 번역한 한글판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주어진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문항마다 9명까지 열거할 수 있으며 지지에 대한 만족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지지의 질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6점)'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시에는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지지망 크기의 가능한 범위는 0-9명이며 숫자가 클수록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만족도의 가능한 총점은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arason 등(1987)은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에 대한 Cronbach's α 를 .90, 지지의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를 .92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에 대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 2) 우울 :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전경규와 이민규(1992)에 의해 번역된 20개 문항의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한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화증상(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20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거의 드물게'(0점), '때로'(1점), '상당히'(2점), '대부분'(3점)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을 받은 대상자들은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adloff,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점 미만은 정상군, 16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구분하였다. 전경규와 이민규(1992)는 우울에 대한 Cronbach's α 를 일반인에서 .89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음주 : 음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음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주일에 마신 술의 평균 단위(drinks)를 사정하였다. 1 drink는 맥주 1캔, 포도주 1잔, 소주나 막걸리 1잔과 동등주 1잔 등이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의 양이 거의 같으므로(약 14gm) 동일한 1단위로 고려하였다.
- 4) 흡연 : 흡연은 지난 한 달간 담배를 피운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흡연의 정도는 하루에 피운 평균 담배 개피수를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3)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다.

- 4)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음주유무, 흡연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대생의 평균 연령은 21.36세이며 직장여성의 평균 연령은 23.93세였다. 여대생의 경우 기독교와 기타 종교를 가진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주교 12.4%, 불교 9.5%로 나타났으며 직장여성은 기타 종교가 56.4%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는 30.1%, 불교 7.5%, 천주교 6.0%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교육 정도는 대졸이 45.2%로 가장 많았고 고졸 40.6%,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가 14.3%였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여대생과 직장여성은 양쪽 모두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각각 60.9%, 7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대생은 친구와 사는 경우가 10.7%, 혼자 사는 경우 10.1%,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 9.5%, 기타가 8.8%였으며, 직장여성은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 9.0%, 혼자 사는 경우 8.3%, 기타 2.3%, 친구와 사는 경우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망의 범위는 0.5-9명으로 평균 2.63명이었으며, 만족도의 범위는 1.3-6으로 평균 4.90이었다. 직장여성은 사회적 지지망의 범위가 0-7명으로 평균 2.17명이었으며 만족도는 1-6의 범위로 평균 4.78이었다. 우울의 정도는 여대생이 2-45점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평균 19.27이었고, 직장여성은 범위가 0-48이었고 평균은 20.34로 나타났다. 16점 미만의 정상군은 여대생이 36.1%, 직장여성은 33.1%였으며 16점 이상의 우울군은 여대생이 63.9%, 직장여성이 66.9%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여대생은 85.2%였으며, 직장여성은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들의 1주일 평균 음주 정도는 여대생이 7.13잔, 직장여성 6.66잔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정도의 범위는 여대생이 1-75잔, 직장여성 1-100잔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대

<표 1>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 정도

(N=302)

	가능한 범위	여대생(n=169)			측정된 범위	직장여성(n=133)			측정된 범위
		n	%	M±SD		n	%	M±SD	
사회적지지									
지지망	0-9			2.63±1.40	0.5-9		2.17± 1.19		0-7
만족도	1-6			4.90±0.70	1.3-6		4.78± 0.87		1-6
우울	0-60			19.27±9.04	2-45		20.34± 8.95		0-48
유		108	63.9			89	66.9		
무		61	36.1			44	33.1		
음주				7.13±11.05	1-75		6.66±12.87		1-100
유		144	85.2			118	88.7		
무		25	14.8			15	11.3		
흡연				9.14± 6.08	1-30		9.83±11.12		1-50
유		37	21.9			18	13.5		
무		132	78.1			115	86.5		

<표 2>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의 차이

(N=302)

	여대생(n=169)		직장여성(n=133)		t	p
	n	M±SD	n	M±SD		
사회적지지						
지지망		2.63± 1.40		2.17± 1.19	-3.036	.003**
만족도		4.90± .70		4.78± .87	-1.261	.209
우울		19.27± 9.04		20.34± 8.95	1.022	.308
음주	144	7.13±11.05	118	6.66±12.87	- .320	.749
흡연	37	9.14± 6.08	18	9.83±11.12	.302	.764

**p< .01

상자는 여대생이 21.9%였고, 직장여성은 13.5%였다. 흡연정도는 여대생이 하루 평균 9.14개피, 직장여성 9.83개피였으며, 흡연 범위는 여대생 1-30개피, 직장여성 1-50개피로 나타났다<표 1>.

3. 여대생과 직장여성간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정도의 차이

대상자들의 평균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는 여대생 2.63명, 직장여성 2.17명으로 여대생이 직장여성보다 지지자의 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t=-3.036, p=.003).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만족도 (t=-1.261, p=.209), 우울(t=1.022, p=.308), 음주(t=-.320, p=.749) 및 흡연(t=.302, p=.764)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4.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음주유무의 차이

여대생의 경우 음주군과 비음주군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망(t=-.071, p=.943)과 만족도(t=.835, p=.405)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의 정도는 음주군이 19.90, 비음주군 15.64로 음주군의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t=2.201, p=.029).

직장여성에 있어서 음주군과 비음주군간의 사회적 지지망(t=-.115, p=.908), 만족도(t=-.311, p=.756), 우울(t=.522, p=.603)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5.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흡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대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망의 평

<표 3>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음주유무의 차이

(N=302)

	여대생(n=169)		t	p	직장여성(n=133)		t	p
	음주군 (M±SD)	비음주군 (M±SD)			음주군 (M±SD)	비음주군 (M±SD)		
사회적지지								
지지망	2.63±1.39	2.65±1.52	-.071	.943	2.16±1.22	2.20±.86	-.115	.908
만족도	4.91±.65	4.79±.99	.835	.405	4.77±.86	4.84±1.02	-.311	.756
우울	19.90±9.08	15.64±8.03	2.201	.029*	20.48±8.57	19.20±11.77	.522	.603

*p<.05

<표 4>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N=302)

	여대생(n=169)		t	p	직장여성(n=133)		t	p
	흡연군 (M±SD)	비흡연군 (M±SD)			흡연군 (M±SD)	비흡연군 (M±SD)		
사회적지지								
지지망	2.14±1.00	2.76±1.47	-2.970	.004**	1.80±.96	2.22±1.21	-1.432	.155
만족도	4.77±.76	4.93±.69	-1.180	.240	4.62±.92	4.80±.87	-.825	.411
우울	22.86±9.04	18.27±8.82	2.790	.006**	21.50±10.70	20.16±8.68	.591	.555

**p<.01

군은 흡연군 2.14명, 비흡연군 2.76명으로 흡연군의 사회적 지지망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970, p = .004$).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의 사회적지지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180, p = .240$). 우울의 정도는 흡연군 22.86, 비흡연군 18.27로 흡연군의 우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790, p = .006$).

직장여성은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에 사회적 지지망($t = -1.432, p = .155$)과 만족도($t = -.825, p = .411$), 우울($t = .591, p = .555$)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V.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의 정도와 그 차이를 알아보고 각 집단간의 사회적지지와 우울 정도에 따른 음주와 흡연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수는 여대생 2.63명, 직장여성 2.17명으로 평균 2-3명의 사회적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대생이 직장여성보다 지지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여대생 4.90, 직장여성 4.78로 '약간' 정도에서 '꽤 만족'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에 이민한 한국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옥수(1998)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지지망이 평균 2.68명이고, 만

족도가 4.50이었던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우울정도는 여대생이 평균 19.27, 직장여성 20.34로 나타났으며 우울군은 여대생 63.9%, 직장여성 66.9%의 분포를 보였다. 여대생과 직장여성 두 집단의 평균 우울 점수는 우울의 가능성 여부의 기준이 되는 cutoff point 16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의 우울 평균 10.57(Cho, Nam, & Suh, 19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의 우울 문제는 잠재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우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여대생과 직장여성간의 우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장여성이 여대생들보다 우울의 정도가 더 높고 우울군이 직장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김병석 등, 1999; 김선아, 오인옥, 1999)는 있었으나 직장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직장여성의 우울과 그에 따른 관련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 대상자 중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대상자는 85.2%였고, 직장여성은 88.7%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학생들의 음주율 74%(Wechsler, Kuo, Lee, & Dowdall, 2000)나 우리 나라 여고생의

음주율 54.8%(김성희, 이충원, 전영호, 2000)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로 인해서 술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잦은 회식 등이 과다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1주간의 총 음주량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상자들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음주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생활습관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음주범위를 조사하였을 때 1주일에 100잔을 섭취하는 대상자도 있어 과다음주자에 대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음주와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알코올 중독자나 과다하게 술을 마시는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주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여대생은 21.9%, 직장여성은 13.5%였고 흡연정도는 여대생이 하루 평균 9.14개피, 직장여성 9.83개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20대 여성의 흡연율을 4.8%(남정자, 최은진, 2000),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원재와 반덕진(1999)이 6.0%로 보고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시 직장여성을 컴퓨터 관련 직종 및 판매직과 서비스직, 그리고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로 표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대생의 경우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에서 골고루 표출하였으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미혼이지만 흡연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혼 후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의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피수는 각각 9.14, 9.83개피로 1995년에 광정옥(1995)이 조사한 여대생의 평균 일일 흡연량 6개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흡연자들의 흡연정도가 점차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회적지지에 따른 음주유무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Heffernan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여성 음주자

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지지자들을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Leonard 등(2000)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또한 우울과 음주량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Graham과 Schmidt(1999)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대생 집단에서는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더 높아 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음주와 관련있는 요인을 좀 더 다각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대생의 경우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흡연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여대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사회적 지지자들을 더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Milligan 등(199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여성 대상자들은 금연을 시도하는데 있어 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여대생 흡연군은 비흡연군보다 우울의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여성들의 흡연이 우울과 관련있다고 보고한 Son 등(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와 우울이 여대생들의 흡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장여성의 경우는 사회적지지와 우울이 흡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흡연행위 조절에 대한 접근이 다르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과 직장여성간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및 흡연에 대해 조사하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였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여대생 169명과 직장여성 133명 등 총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들과 직장여성들은 약 2-3명의 사회적 지지자를 가지며 지지에 대해서는 '약간'에서 '꽤 만족'하는 정도였다. 우울군은 여대생이 63.9%, 직장여성이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 중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5.2%, 직장여성은 88.7%였으며, 음주자들의 1주 평균 음주정도는 여대생이 7.13잔, 직장여성 6.66잔으로 나타났

- 다. 지난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여대생은 21.9%이며, 직장여성은 13.5%였으며, 흡연 정도는 여대생이 하루 평균 9.14개피였고, 직장여성은 9.83개피였다.
- 2) 여대생과 직장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 음주, 흡연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대생이 직장여성보다 사회적 지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 3) 여대생의 경우 음주군과 비음주군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망과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군이 비음주군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에게 있어서 음주군과 비음주군간의 사회적 지지망, 만족도, 우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정도에 따른 흡연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여대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사회적 지지자를 더 적게 가지고 있었고 우울의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러나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장여성의 경우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의 사회적 지지망과 만족도, 우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에 우울의 정도가 음주와 흡연에 관련이 있었고, 사회적 지지망은 흡연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여성은 사회적지지와 우울 모두 음주와 흡연에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여대생과 직장여성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다룰 때는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집단간에 적절한 간호중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중재방안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정옥 (1995).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2(2), 120-137.

김병석, 김희수, 김자영 (1999). 인천시내 고3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성향에 관한 연구(실업계 및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천의학, 1(1), 41-50.

김선아, 오인옥 (1999). 여대생들의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친밀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 대한간호학회지, 29(5), 1021-1029.

김성희, 이충원, 전영호 (2000). 대구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건강관련 위험행동 조사. 대한보건협회학술

지, 26(1), 38-45.

김옥수 (1998). 사회적지지가 미국 이민노인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0(2), 311-321.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정자, 최은진 (2000). 전국 건강과 영양조사에 기초한 한국여성건강과 정책. 대한여성건강학회 제2회 학술 심포지움.

유형심 (1993).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음주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재, 반덕진 (1999).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관련행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 157-171.

전겸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11(1), 65-76.

정태홍, 박성민, 배무경, 이근미, 정승필, 백승호 (1998). 대구지역 일부 인문계 고교생들의 흡연에 관련된 요인. 가정의학회지, 19(1), 59-67.

통계청 (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통계청.

Albright, A. V. (1999).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4(2), 393-407.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 745-746.

Bradley, K. A., Badrianth, S., Bush, K., Boyd-Wickizer, J., & Anawalt, B. (1998). Medical risks for women who drinks alcohol. Journal of General International Medicine, 13(9), 627-639.

Brady, K. T., & Randall,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substance use disord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2(2), 241-252.

Cho, M. J., Nam, J. J., & Suh, G. H. (1998). Preval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adults. Psychiatry Research, 81, 341-352.

Denton, M., & Walters, V. (1999).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 An analysis of the

- social production of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48(9), 1221-1235.
- Elder, J. P., Campbell, N. R., Litrownik, A. J., Ayala, G. X., Slymen, D. J., Parra-Medina, D., & Lovato, C. Y.(2000). Predictors of cigarette and alcohol susceptibility and use among Hispanic migrant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31(2 Pt 1), 115-123.
- Eriksen, W., Sandvik, L., & Bruusgaard, D. (1997). Social support and the smoking behaviour of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5(2), 93-99.
- Escobedo, L. G., Kirch, D. G., & Anda, R. F. (1996). Depression and smoking initiation among in Latinos. Addiction, 91(1), 113-119.
- Graham, K., & Schmidt, G. (1999). Alcohol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3), 345-351.
- Heffernan, K. (1998). The nature and predictors of substance use among lesbians. Addictive Behaviors, 23(4), 517-528.
- Hong, O. K. (1996). Antecedents and health-related consequences of loneliness in older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 Lee, Y. S. (1995). A study on the effective alcohol education strategies for the preventive of alcoho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2(2), 139-145.
- Leonard, K. E., Kearns, J., & Mudar, P. (2000). Peer networks among heavy, regular and infrequent drinkers prior to marriag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669-673.
- Milligan, R. A., Burke, V., Beilin, L. J., Richards, J., Dunbar, D., Spencer, M., Balde, E., & Gracey, M. P.(1997). Health-related behavior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18 year-old Austral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45(10), 1549-1562.
- Pollack, H., Lantz, P. M., & Frohna, J. G. (2000). Maternal smoking and adverse birth outcomes among singleton and twi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3), 395-40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th, P. (1989). Family social support. In P. J. Bomar(Ed.), Nurses and family health promotion : Concepts, assessment, and interventions(pp. 90-99). Baltimore : Williams.
- Sarason, I. G., & Sarason, B. R. (1985).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pplication. Dorrecht, Netherlands : Martinus Nijhoff.
- Sarason, I. G., & Sarason, B. R., Shearin, E. N., & Pierce, G. R.(1987).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4, 497-510.
- Schraedley, P. K., Gotlib, L. H., & Hayward, C. (1999).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 98-108.
- Son, B. K., Markovitz, J. H., Winders, S., & Smith, D. (1997). Smoking, nicotine dependence, an depressive symptoms in the CARDIA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5(2), 110-116.
- Wechsler, H., Kuo, M., Lee, H., & Dowdall, G. W. (2000). Environmental correlates of underage alcohol use and relat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9(1), 24-29.

- Abstract -

Key concept : Social support, Depression,
Drinking, Smoking, College
females, Working females

Social Support,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in College and Working Females

Kim, Ok-Soo · Kim, Kye-Ha***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support,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in college and working females. The convenience sample consisted of 169 college females and 133 working female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00. Social support was measured by the 6-item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which assesses the size of the emotional social support network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was utiliz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symptoms. The average number of drinks and cigarettes smoked per week during the previous month was assessed.

Results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had more social support than working female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ir support,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between two groups. College females who smoked cigarettes were more depressed and had less social support than those who did not smoke. Also college females who drank alcohol were more depressed than those who did not drink during the previous month. Howev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not associated with drinking and smoking among working females. Based on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various interventions to deal with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among college and working females.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Part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College